

『오대산사적기(五臺山事蹟記)』의* 판본과 민지(閔漬)의 자장전기(慈藏傳記) 자료 검토 - 새로 발견된 민지의 자장전기 자료를 중심으로 -

염중섭(자현)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조교수
kumarajiva@hanmail.net

- I. 서론 - 『오대산사적기』 갑·을·병·정
본의 판본 검토
- III. 민지본의 모색과 자장전기의 변화 이유
- II. 을본과 정본의 자장전기 자료와 그
차이점
- IV. 결론 - 민지 자장전기의 특징과 가치

요약문

자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내 자료는, 일연의 『삼국유사』 속 문헌들과 민지의 『오대산사적기』 안의 자장전기가 있다. 민지의 자장전기와 관련해서, 지난 2014년 가을 월정사에서 새로운 판본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하여 ‘판본 문제’와 ‘민지본의 원형’에 대한 검토가 새롭게 요청받게 된다.

본고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제1장에서는 『오대산사적기』의 판본검토를 개진한다. 이를 통해서 현재 널리 유통되던 병·정본의 체계가 갑·을본에 비해서

* 本稿는 本人의 「慈藏의 傳記資料 研究」(서울: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2015)의 一部를 修訂·補完한 것.

늦다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제Ⅱ장부터는, 갑·을본의 대표격인 을본과 병·정본의 대표가 되는 정본을 통해서 자장전기의 내용 차이에 대해서 검토해본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을본과 정본의 차이점인 총 8가지를 제시하고 이의 의미파악을 시도해본다. 이는 자료의 원형인 민지본에 대한 판단배경을 확보하는 부분이 된다.

다음으로 제Ⅲ장에서는, 제Ⅱ장의 차이에서 확인되는 변화이유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한다. 이를 통해서 판본검토에서와 같이 자장전기에서도, 갑·을본이 병·정본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의 민지본에 대한 이해를 수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높은 연구의의를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앞장들의 검토결과와 함께 민지 자장전기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민지의 자장전기가 일반적인 판단과 달리, 일연의 자장에 대한 기록보다 더 높은 원 자료의 충실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게 된다.

주제어

『오대산월정사개창조사전기(五臺山月精寺開創祖師傳記)』, 『봉안사리개건사암제일조사전기(奉安舍利開建寺庵第一祖師傳記)』, 일연, 사리, 오대산, 자장

I. 서론 - 『오대산사적기』 갑·을·병·정본의 판본 검토

자장에 대한 국내 자료는, 일연의 『삼국유사』 속 「자장정율」과 민지의 『오대산사적기』 안의 자장전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 중 『오대산사적기』의 자장전기는 「자장전」에 기초해서 오대산의 개산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사찰 사적기는 조선후기에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오대산사적기』는 고려후기의 최고 문신 중 한 명인 민지에 의해서 편집되었고, 구체적인 민지의 「발문」까지 남아 있다. 이는 고·중세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다. 특히 민지는 일연과 1세대 정도 밖에 차이가 나

지 않는 인물이다. 이는 일연과 민지가 공동된 자료를 보았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동시에, 민지는 일연의 자장관련 문헌들을 볼 수 없는 상황을 파생한다. 또 민지의 「발문」에는 오대산불교의 요청에 의해서, 민지가 “필삭(筆削)” 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1307년에 작성된 『오대산사적기』에 2년 앞선, 1305년의 『풍악산장안사사적기(楓嶽山長安寺事蹟記)』 민지 「발문」에는, 장안사 측에서 관련 자료 일축(一軸)을 베껴서 제공했다는 점과 “필삭”이라는 언급이 확인된다.¹⁾ 이를 통해서 『오대산사적기』 역시 비슷한 방식의 오대산불교의 자료제공과 민지의 필삭으로 완성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즉 민지는 일연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인 정리작업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양자의 대비를 통한 파악은, 자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본고는 이 중 『오대산사적기』의 판본에 관해서 측면을 정리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오대산사적기』는 갑·을·병·정본의 총 네 가지가 존재한다. 이 중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그 중 보존상태가 양호한 병·정본이며, 병·정본 상에는 이렇다할 큰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계에서는 유통되지 않는 갑·을본 역시 병·정본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렇게 인식하는 이유는, 병·정본 상에 큰 차이가 없고, 갑·을본이 보존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4년 가을에 있었던 『오대산사적기』 역주사업의 결과는, 이와 같은 통념을 깨트리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갑·을본 사이에는 이렇다할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갑·을본과 병·정본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오대산사적기』는 갑·을본과 병·정본이라는 두 가지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²⁾

갑·을본과 병·정본사이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오대산사적기』 전체의 구조적인 차이이며, 둘째는 자장전기의 앞 1/4정도까지에서 발견되는 내용상의 차이이다.

1)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楓嶽山長安寺事蹟記一跋文」, 『乾鳳寺本末事蹟·楡岾寺本末寺誌』(서울: 亞世亞文化社, 1977), p.326, “寫成一軸. 先使人囑予以筆削.”

2) 閔漬의 慈藏記錄 이외의 다른 부분들은 韓國木簡學會 編, 「『五臺山事蹟』의 甲·乙·丙·丁本」, 『韓國木簡學會 하계워크샵 資料集』(平昌: 五臺山 月精寺, 2014)의 研究成果를 參照하라.

먼저 첫째와 관련해서, 『오대산사적기』의 전체구조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서문
 - ② 「오대산월정사개창조사전기[잡·을본]
「봉안사리개건사암제일조사전기[병·정본]
 - ③ 「오대산성적병신라정신태자효명태자전기(五臺山聖跡并新羅淨神太子孝明太子傳記)」-『삼국유사』 「대산오만진신」의 상당부분과 「명주오대산보질도태자전기」에 상응함.
 - ④ 「신효거사친견오류성사적(信孝居士親見五類聖事蹟)」-『삼국유사』의 「대산월정사오류성중」에 상응함.
 - ⑤ 발문-1307년 민지 기(記)
-
- ⑥ 1434년 조뇌(趙寯, 추정) 기(記)-민지 글을 베낀 것에 오자가 많으므로 새롭게 적으면서 쓴 간략한 기록
 - ⑦ 1422년 기록-태조의 오대산 행차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다시 쓰게 하였다는 기록
 - ⑧ 1400년 기록-태조의 오대산 행차와 공양·보시한 기록으로, 『강릉읍지』를 보고 추가한 내용임
 - ⑨ 1902년 만화각준(萬化覺俊) 기(記)
-
- ⑩ 「아조본산사적(我朝本山事蹟)」-1464~1466년의 태조와 세조 및 상원사 중창에 관한 기록
 - ⑪ 「선원보략봉안사적(璿源寶略奉安事蹟)」-1606년의 오대산사고 설치와 관련된 기록
 - ⑫ 「산중산기(山中散記)」-1833년의 대화재와 이후의 중건에 대한 내용을 기록
 - ⑬ 1902년 「발(跋)」 3편

이 중에서 ①~⑤가 민지의 1차 『오대산사적기』 부분이다. 그리고 ⑥~⑧

은 조선시대 초기 『오대산사적기』의 필사와 태조의 행차 및 공양·보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된 사항이며, ⑨는 1902년 『오대산사적기』가 재정리되는 과정에서 첨가된 「발문」이다. 또 ⑩~⑫는 조선시대의 오대산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추가된 것이며, ⑬은 1902년 『오대산사적기』를 하나로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첨가된 「발문」이다. 이상의 갑·을·병·정의 네 본의 구조를 간략히 도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³⁾

<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갑	○	○	○	○	○	○	○	○					
을	○	○	○	○	○	○	○	○	○				
병	○	○	○	○	○					○	○	○	○
정	○	○	○	○	○					○	○	○	○
내용	민지의 1차 『오대산사적기』					조선 초에 추가된 내용			1902년 발문	조선시대 오대산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			1902년 발문

위의 <표>를 보게 되면, 『오대산사적기』는 민지본을 기본으로 해서, 갑·을본과 병·정본의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갑·을본은 민지의 『오대산사적기』에 조선초기의 간행관련 내용 및 태조의 오대산 행차라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이에 비해서 병·정본은 민지의 『오대산사적기』에 조선초기의 태조와 세조에 관한 부분, 그리고 오대산사고의 설치와 조선후기에 발생한 오대산의 대화재와 복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구성 상으로만 본다면, 갑·을본의 형태가 병·정본에 비해서 성립시기가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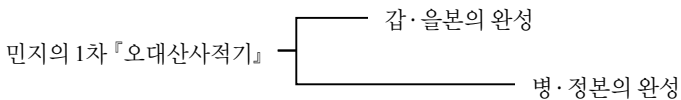
이는 갑·을본은 조선초기까지의 『오대산사적기』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하여, 병·정본은 민지본에 조선시대의 오대산과 관련된 내용을 두루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⑥은 새로운 필사에 대한 내용일 뿐이므로 크게 중요하

3) 韓國木簡學會 編, 『『五臺山事蹟』의 甲·乙·丙·丁本』, 『韓國木簡學會 하계위크샵 資料集』(平昌: 五臺山月精寺, 2014), p.2.

지 않지만, ⑦·⑧은 태조와 관련된 것이므로 병·정본에도 수록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병·정본의 편집자는, 이 내용 중 중요한 핵심은 ⑩이 아우를 수 있으며, 나머지는 특별할 것이 없기 때문에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즉 ⑩ 안에 ⑦·⑧이 아울러지면서 생략되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갑·을본에 비해서 병·정본이 보다 일반화되는 이유를 판단해 볼 수 있다. 실제로 갑본은 훼손이 심하지만, 을본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정본만 알려지게 되는 것은, 병·정본이 오대산 안에서 이미 『오대산사적기』를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병·정본이 유통본이었다는 말은, 갑·을본이 후대에 개변의 여지가 적은 본래의 원형이었을 개연성을 환기시킨다. 이런 점에서 갑·을본에 대한 새로운 정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을본에 1902년의 만화각준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은, 갑·을본 역시 전혀 활용되지 않다가 갑자기 드러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즉 최소한 사찰의 특정 공간에 잠들어 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는 일반화된 병·정본과 더불어 갑·을본 역시 부족하나마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환기시킨다.

갑·을본과 병·정본의 서로 다른 두 사적기의 존재는, 『오대산사적기』의 민지본이 모태가 되어 이후 갑·을본이 만들어지고, 다시금 후대의 자료추가에 대한 요구 속에서 병·정본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갑·을본의 완성시기가 병·정본에 비해서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대산사적기』의 핵심은 민지본이다. 이런 점에서만 본다면, 갑·을본이 병·정본에 비해서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논리가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다. 즉 병·정본이 갑·을본을 이어서 발전시킨 형태가 아니라, 서로 별개의 구조로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갑·을·병·정본의 민지 기록에는 문제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를 간략하게 도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민지의 1차 『오대산사적기』 안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그 중 가장 큰 차이는 자장전기 자료의 앞부분 1/4에서 발견된다.

II. 을본과 정본의 자장전기 자료와 그 차이점

을본과 정본의 자장전기는 그 앞 1/4까지는 많이 다르지만, 내용적으로 대동소이한 측면을 제외하면 그 내용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 갑·을본과 병·정본은 내용에 있어서 이체자와 오탈자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4본 중 가장 보존상태가 좋은 을본과 정본의 차이를 중심으로, 내용적으로 중요한 것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乙本 : 「五臺山月精寺開創祖師傳記」
 丁本 : 「奉安舍利開建寺庵第一祖師傳記」
- ② 丁本에만 추가 : 新羅武林公之第二子善德王之親族也
- ③ 丁本에만 추가 : 忽聳空中聲曰與其獨善其身塾若普濟海人
- ④ 乙本에만 추가 : 盲者得視聾者得聞
- ⑤ 丁本에만 추가 : 善德王聞師魁傑欲拜相國師堅志不聽王大怒以劔授使者曰
 今若不從斬首級來祖師引頸授使者曰破戒而生不如持戒而死略無懼色使
 者不忍加誅復于王於是王壯其岳立之志許焉師時年二十五也
- ⑥ 丁本에만 추가 : 西浮大洋命寄剝木
- ⑦ 乙本에만 추가 : 至貞觀十六年往五臺山東臺一坐不起者三旬夢見一僧來謂
 曰欲悟佛法者宜於北臺
- ⑧ 丁本에만 추가 : 五臺山登地爐峰奉安佛腦及頂骨立碑於伽羅墟碑則隱而不
 現以紀其蹟因創月精寺建十三層塔奉安舍利三十七枚於塢心今傳優婆掬多之
 舍利塢者誤也

이상의 총 8가지 핵심쟁점 중 첫째는 자장전기의 제목이다. 을본은 「오대산

월정사개창조사전기」라고 되어 있는 반면, 정본에서는 「봉안사리개건사암제일조사전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목을 보면 을본이 자장과 관련하여 ‘오대산 개창’에 주안점을 두고 자장전기를 구성하고 있다면, 정본에는 ‘사리봉안(奉安舍利)’와 ‘개건사암(開建寺庵)’이라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자장전기를 말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을본과 정본의 내용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신라오대산에 불사리를 봉안하는 측면 역시 극히 제한적으로만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불사리 봉안은, 여덟째의 “오대산(五臺山), 등지로봉(登地爐峰), 봉안불뇌급정골(奉安佛腦及頂骨). 입비어가라허(立碑於伽羅墟). [비칙은이불현(碑則隱而不現)]. 이기기적(以紀其蹟). 인창월정사(因創月精寺), 건십삼층탑(建十三層塔), 봉안사리삼십칠매어탑심(奉安舍利三十七枚於塿心). [금전우바국다지사리탑자오야(今傳優婆掬多之舍利塿者誤也)]. 출원효소찬전(出元曉所撰傳).”에 해당하는데, 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오대산에 가서, 지로봉에 올라 불뇌와 정골을 봉안했다.(그리고는) 가라허에 비를 세웠다.[비석은(현재는) 땅 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다.](이 비석에) 그 사적을 기록하였다.(이로) 인하여(다시금) 월정사를 개창하고, 13층탑을 건립하여 사리 37매를 탑심에 봉안했다.[지금 전하기를, 우바국다의 사리탑이라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원효 소찬의 『전(傳)』에 나와 있다.)

이 기록은 정본에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원효 소찬으로 전해지던 자장과 관련된 『전』에 따른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전』을 인용하고 있는 을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 그러므로 이는 후대에 추가된 내용으로 판단된다.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정본의 제목이 왜 오대산의 개창과 사리봉안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 또 오대산 중대의 사리봉안 문제가 갑·을본과 병·정본의 차이와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해 볼 수가 있다. 이는 갑·을본이 민지의 古本이며, 병·정본이 후대에 윤색된 것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된다.

둘째는 정보에만 수록되어 있는 “신라무림공지제이자(新羅武林公之第二子), 선덕왕지친족야(善德王之親族也).”라는 구절이다. 자장이 진골이라는 점에서 선덕왕의 친족이라는 내용은 당연한 내용이다. 그러나 자장이 소판무림의 두 번째 자식이라는 구절은, 자장의 누이인 남간부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남간부인은 명랑의 어머니로, 남간부인과 자장과의 관계는 누나인지 누이동생인지가 뚜렷하지 않다. 이는 사료 상으로는 남간부인이 더 나이가 많아야 하지만,⁴⁾ 자장의 출생과 관련해서 무림에게 자식이 없어 천부관음(千部觀音)에게 기도를 해서 자장을 낳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⁵⁾ 이 구절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이 구절에 따르면 자장은 둘째이며,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아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록이 정보에만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이 기록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었다. 또 이 대목은 보기에 따라서 주문(註文)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구절이다. 그러므로 후대의 삽입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셋째는 자장이 서상수계(瑞祥受戒)를 받은 이후, 대중적인 수계교화와 전환하는 과정과 관련된 정보의 “홀문공중성왈(忽聳空中聲曰), 여기독선기신속약보제해인(與其獨善其身塾若普濟海人).”이라는 구절이다. 자장이 홀연한 공중의 소리로, “그 홀로 그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어찌 두루 많은 사람들을 제도함만 같겠는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자기수행에서 대중적인 중생교화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장이 수행을 완성해서 교화자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정보에만 존재하나는 점에서, 신뢰도가 재고되게 된다.

4) 『三國遺事』卷5, 「神呪第六－明朗神印」(『大正藏』49, p.1011中), “善德王元年入唐. 貞觀九年乙未來歸.”
5) 『續高僧傳』卷24, 「護法下一唐新羅國大僧統慈藏傳(圓勝)」(『大正藏』50, p.639上), “而絕無後嗣. 幽憂每積. 素仰佛理乃求加護. 廣請大捨祈心佛法. 并造千部觀音. 希生一息. 後若成長. 願發道心度諸生類.”; 『三國遺事』卷4, 「義解第五－慈藏定律」(『大正藏』49, p.1005上), “絕無後胤. 乃歸心三寶. 造于千部觀音. 希生一息. 祝曰. 若生男子. 捨作法海津梁.”

넷째는 일본의 “맹자득시(盲者得視), 농자득문(聾者得聞)”이다. 이는 자장이 대중적인 수계교화를 통해서, 맹인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했다는 이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수계의 공덕에 따른 신이함과, 자장이 서상수계를 통해서 율사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기록을 통해서 자장이 입당을 통해서 도선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라에서부터 율사로 완성되어 도선과 교류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시사 받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는 자장이 입당 직후 당 황실의 융숭한 대우를 받으면서, 도선과 교류하기 이전부터 수계교화를 통해 많은 이들을 제도한다는 도선의 「자장전」과 일연의 「자장정율」의 기록과도 일치된다.⁶⁾ 또 이 내용은 도선이 자장을 『속고승전』 「호법 하」에 ‘호법보살(護法菩薩)’로 존승하며,⁷⁾ 입전(入傳)시키는 것과 연관해서도 이해해 볼 수가 있다. 특히 이 내용이 일본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새로운 것인 동시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섯째는 정본에만 수록되어 있는 “선덕왕문사괴걸(善德王聞師魁傑), 옥배상국(欲拜相國), 사견지불청(師堅志不聽), 왕대노(王大怒), 이일수사자(以鉞授使者), 왈금약불종참수급래(曰今若不從斬首級來), 조사인경수사자(祖師引頸授使者), 왈과계이생불여지계이사(曰破戒而生不如持戒而死), 약무구색(略無懼色), 사자불인가주(使者不忍加誅), 복우왕(復于王), 어시왕장기악입지지허언(於是王壯其岳立之志許焉), 사시년이십오야(師時年二十五也).”라는 기록이다. 이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선덕왕은 조사가 빼어난 인걸(魁傑)이라는 말을 듣고는 상국을 제수하려 하였으나, 조사의 뜻이 견고하여 듣지 않았다. 왕이 대노하여 칼을 사자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제 만약 쫓지 않는다면 수급을 참하여 오라.”

6) 『三國遺事』卷4, 「義解第五－慈藏定律」(『大正藏』49, p.1005中), “詔許引入宮, 賜絹一領, 雜綵五百端, 東宮亦賜二百端.”; 『續高僧傳』卷24, 「護法下－唐新羅國大僧統釋慈藏傳(圓勝)」(『大正藏』50, p.639中·下), “貞觀十七年, 本國請還, 啟勅蒙許, 引藏入宮, 賜納一領雜綵五百段, 東宮賜二百段, 仍於弘福寺為國設大齋, 大德法集, 并度八人, 又勅太常九部供養, 藏以本朝經像彫落未全, 遂得藏經一部并諸妙像幡花蓋具堪為福利者, 齋還本國.”

7) 『續高僧傳』卷24, 「護法下－唐新羅國大僧統釋慈藏傳(圓勝)」(『大正藏』50, p.639下), “護法菩薩即斯人矣.”

하였다. 조사가 목을 늘어뜨려 사자에게 갔다 대면서 말하기를, “파계하고 사는 것이 지계하고 죽는 것만 같지 않다.” 하였다. (조사가)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으니, 사자가 차마 주살하지 못하고 왕에게 돌아갔다. 이에 왕이 그 악립(岳立)의 지(志)가 장함을 (알고 조사의 뜻대로 하도록) 허락했다. 조사의 나이 당시 25세였다.

자장의 계율을 위해서 목숨을 초개와 같이 여긴 이 일화는, 오늘날까지 자장의 계율정신을 대표하는 내용으로 널리 회자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거의 같은 내용이 도선의 「자장전」과⁸⁾ 일연의 「자장정율」에서도⁹⁾ 확인된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일화의 원전은 도선의 「자장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자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일화가 자장전기에 누락되어 있자, 후대에 『오대산사적기』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추가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오대산사적기』는 사적기라는 특성상 인쇄본이 없고 필사본 뿐이다. 그러나 필사본은 필연적으로 필사하는 과정에서 문장과 내용이 개변될 여지가 존재한다. 즉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라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로 인하여 자장의 나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인 “사시년이십오야(師時年二十五也)”라는 구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자장이 처자를 버리고 개인적으로 출가했다가, 출가를 공인받게 되는 것이 25세라는 것은 나름의 타당성이 확보된다. 그러나 당시 25세에 재상급 지위의 물망에 올랐다는 대목은, 제아무리 신분제 사회라고 하더라도 너무 이르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여기가 있다.

또 이 25세의 기록 다음에는 곧바로 입당기록이 존재한다. 즉 이를 연속된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25세는 출가를 공인받은 나이로는 타당하지만, 자장의 입당과 관련된 나이로는 불가하다. 자

8) 같은 책, (p.639 上·中), “而冥行顯被物望所歸. 位當宰相類微不就. 王大怒. 勅往山所將加手刃. 藏曰. 吾寧持戒一日而死. 不願一生破戒而生. 使者見之不敢加刃. 以事上聞. 王愧服焉. 放令出家任修道業.”

9) 『三國遺事』卷4, 「義解第五—慈藏定律」(『大正藏』49, p.1005 上), “適台輔有關. 門閥當議. 累徵不赴. 王乃勅曰. 不就斬之. 藏聞之曰. 吾寧一日持戒而死. 不願百年破戒而生. 事聞. 上許令出家.”

장의 입당 시 나이가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입당 이후 당의 환대와 연로한 고승인 법상(당시 72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본다면, 이때 자장의 나이가 25세 보다 조금 많다는 이 기록을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를 내포하는 것이 민지의 “사시년이십오야”라는 기록이다. 그런데 이 구절이 갑·을본에는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 이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보다 유연한 관점을 확보 받아 볼 수가 있게 된다.

자장의 연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이외에 도세가 기록한 「석자장」의 “인구미질병졸어영휘년중(因邁微疾卒於永徽年中)”이 더 있을 뿐이다.¹⁰⁾ 즉 이로 인하여 자장의 연대를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중 하나의 가치가 크게 축소되는 것이다. 또 “사시년이십오야”라는 구절과 관련해서는, 이 기록 역시 둘째와 마찬가지로 주문(註文)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앞의 계율 일화와 25세라는 내용이 서로 다른 출전에 바탕을 둔 기록일 개연성을 환기시킨다.

여섯째는 을본에 수록되어 있는 자장의 입당연도와 관련해서, 주문(註文)으로 “『삼국사』 선덕왕오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정본의 “서부대양명기목(西浮大洋命寄剝木)”이라는 구절이다. 먼저 전자는 자장의 입당연도가 『삼국사(三國史)』에는 선덕왕 5년으로 되어 있지만, 본 자장전기에서는 선덕왕 7년을 사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¹¹⁾ 그러나 이것이 주문(註文)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을본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 후자는 자장이 입당 시에 배를 타고 갔다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입당과 관련해서는, 삼국의 갈등 관계상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원효·의상의 1차 입당시도와 관련해서, 육로로의 입당을 시도하는 기록도 있어 이를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정본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불확실하게 된다. 그러나 자장이 배를 이용한 내용은, 『속

10) 『法苑珠林』卷64, 「感應緣－唐沙門釋慈藏」(『大正藏』53, p.779下).

11) 廉仲燮, 「慈藏의 入唐目的과 年度에 대한 타당성 검토－閔漬의 「第一祖師傳記」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제118호(果川: 韓國史學會, 2015), pp.82-120.

고승전』 권15 「법상전(法常傳)」의 “수가산항해원조경사(遂架山航海遠造京師)” 구절에서도¹²⁾ 확인된다. 즉 정본의 배를 이용한 내용은 충분한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남동신은 앞선 다섯째 중 “사시년이십오야”라는 구절이, 구체적인 나이를 지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거에 입각한 타당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배를 이용한 구절 역시 충분한 타당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병·정본의 자장전기 자료 윤색이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대산에 전해지던 모종의 자장 관련 사중고전(寺中古傳)에 입각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준다. 이는 갑·을본과 병·정본의 차이가 단순한 자료의 윤색 이외에도 또 다른 의미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째는 을본에만 수록되어 있는 “지정관십육년왕오대산(至貞觀十六年往五臺山). 동대일좌불기자삼순(東臺一坐不起者三旬). 몽견일승래위(夢見一僧來謂), 왈욕오불법자(曰欲悟佛法者), 의어북대(宜於北臺).”라는 구절이다. 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정관 16(642)년에 이르러 오대산으로 갔다. 동대에서 일좌하여 30일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꿈에 일승(一僧)이 나타나 말하기를, “불법을 깨닫고자 한다면 마땅히 북대에서 문수를 면견(面見)토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 기록은 자장의 입당 연대 중, 유일하게 중국오대산행이 가능한 642년에 오대산으로 갔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주목된다.¹³⁾ 즉 자장의 중국오대산

12) 『續高僧傳』卷15, 「義解篇十一—唐京師普光寺釋法常傳」(『大正藏』50, p.541上).

13) 慈藏의 入唐은 636년과 638년의 두 가지설이 있지만, 638년설이 더 타당하다(廉仲燮, 「慈藏의 入唐目的과 年度에 대한 타당성 검토—閔漬의 「第一祖師傳記」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제118호[果川: 한국사학회, 2015], pp.104-114; 廉仲燮, 「慈藏의 五臺山 開創과 中臺 寂滅寶宮」, 『韓國佛敎學』 제66호 [서울: 韓國佛敎學會, 2013], pp.13-21). 이후 3년간 雲際寺 동쪽에서 수행을 하게 된다(『續高僧傳』卷24, 「護法下—唐新羅國大僧統釋慈藏傳[圓勝]」, 『大正藏』50, p.639中). 그리고 자장이 귀국하는 것은 643년 3월 16일이다(『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善德王—十二年: 三月. 入唐求法高僧慈藏還.”; 『三國遺事』卷3, 「塔像第四—皇龍寺九層塔」, 『大正藏』49, p.990下, “貞觀十七年癸卯十六日. 將唐帝所賜經像袈裟幣帛而還國.”). 이렇게 놓고 본다면, 慈藏 五臺山行의 유일한 가능기간은 642년 뿐인데, 바로 이 부분이 乙本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행에 무계가 실어질 수 있는 기록인 것이다. 그것도 이 내용이 민지의 원본 가능성이 높은 을본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장의 중국오대산행에 대해서는 도선의 「자장전」에 일체 언급이 없다. 이 점 때문에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연구들도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구절이 갑·을본의 자료 검토를 통해서 새롭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여기에서 나오는 642년은 자장의 입당행적을 고려해 봤을 때, 유일하게 오대산행이 가능한 년도라는 점에서 특히 더 주목된다.

또 여기에는 기존의 국내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던, 자장의 중국오대산 행로와 관련된 동대가 언급되고 있다. 즉 이를 통해서 자장의 오대산 행적이 ‘동대 → 북대 → 태화지’였다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게 된다. 물론 이것이 후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자장이 북대 이외에도 동대를 참배했다는 기록이, 국내 자장전기에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자료적인 중요성은 충분하다.

끝으로 여덟째는 앞의 첫째와 관련해서 이미 논의했으므로 별도의 언급은 생략하고자 한다.

이상의 8가지 핵심쟁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자료에 내포하는 의미와 이것이 자장의 생애를 조명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또 이를 통해서 갑·을본이 고본으로 이것이 민지의 원형으로 추정되며, 병·정본은 후대의 사리봉안 등과 관련해서 추가·변형된 것이라는 판단을 수립해 보게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민지본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다음 항에서는 편찬자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I. 민지본의 모색과 자장전기의 변화 이유

갑·을본과 병·정본 중 먼저 완성되는 것은, 『오대산사적기』의 체계상 갑·을본이라는 점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렇

다고 해서 이것이 민지본에 대한 선행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오대산사적기』가 판본으로 되어 있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적기는 특성상 많은 책이 필요 없다. 그러므로 판본을 갖추지 않고 필사본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대산사적기』처럼 두 가지 본이 존재할 경우, 여기에는 당연히 선후 문제가 내포하게 된다. 특히 『오대산사적기』는 찬자가 민지라는 점에서 중요한데, 후자가 되는 것은 민지 글이 수정된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적지 않다. 즉 여기에는 ‘어떤 것이 민지의 원형이냐’를 가리는 측면이 존재하며, 이와 더불어 자료의 신뢰도 문제가 동반되는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 본은 자장전기의 전체가 아닌 앞의 1/4정도에서만 차이가 발견되며, 뒤쪽에서는 신라오대산의 사리봉안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이는 양자의 선후문제 판단에 어려움을 부여한다. 즉 전체가 윤색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판단이 쉽지 않다는 말이다. 또 민지가 자장전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원효의 찬술이라고 전해지던 자료인, 『본전』과 『전』 그리고 오대산 문헌인 『기(記)』. 또 찬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오대산 문헌인 『대산본기』와 『대산본전기』는 모두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는 1차 자료에 입각한 검토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렇게 되면 이제는, 갑·을본과 병·정본 사이의 차이점에 입각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서만, 민지본의 원형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현재 두 본의 입장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측면은, 앞항에서도 제시한 바 있는 ‘오대산의 개산만을 말할 것이냐’와 ‘오대산개산과 봉안사리를 아울러 언급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다. 이해의 용이를 위해서 해당부분의 을본과 정본을 다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乙本: 「병·정본의 완성(祖師傳記) - 後往江陵郡(今溟州也), 創月精寺. 已上
出元曉所撰傳.

丁本: 「奉安舍利開建寺庵第一祖師傳記) - 後往溟州(今江陵也), 五臺山, 登地

爐峰, 奉安佛腦及頂骨. 立碑於伽羅墟. (碑則隱而不現). 以紀其蹟. 因創月
精寺. 建十三層塔, 奉安舍利三十七枚於塢心. (今傳優婆耨多之舍利塢者
 誤也). 出元曉所撰傳.

인용문을 보면, 을본에 비해서 정본은 두 가지 사실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중대의 사리봉안과 이와 관련된 비석건립이며, 둘째는 월정사 13층탑과 37매의 사리봉안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오대산의 사리봉안이라는 측면에서 관점이 일치한다. 이는 이 내용이 함께 기록되는 이유로 판단된다. 즉 오대산의 개산과 관련해서 ‘문수와 자장에게서 기원을 찾으려는 흐름’과 ‘불사리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불사리 역시 문수에게서 시작되어 자장에게 전래되었다는 점에서, 양자는 시원의 본질에서는 차이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오대산의 개산을 ‘문수와 자장’에게서 찾을 것이냐와, ‘불사리 봉안+문수와 자장’에게서 찾을 것이냐의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본의 제목과 위의 내용에서, 사리봉안이 먼저이고 월정사 창건이 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분명해진다.

그러나 정본의 글에는 큰 허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글의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을본과 마찬가지로 원효소찬 『기』를 출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에 을본과 같은 간략한 내용만 있었는가, 또는 정본처럼 사리봉안에 대한 내용도 아울러 수록되어 있느냐를 판단해 볼 수 있으면, 이 부분이 추가윤색된 것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물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기』의 내용을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같은 민지본의 하나인 「신효거사친견오류성사적(信孝居士親見五類聖事蹟)」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甲本 : 「信孝居士親見五類聖事蹟」, “庭中有八面九層石塔內, 安優婆耨多耨者
舍利. (出通度寺戒壇記, 亦出事林廣記也.)”

乙本 : 「信孝居士傳」, “庭中有八面九層石塔內, 安優婆耨多耨者舍利.¹⁴⁾ (出通

度寺戒圻記, 亦出事林廣記.)”

丙本: 「信孝居士親見五類聖事蹟」, “庭中有八面十三層石[土+(人/富-宀)]內,

安世尊舍利三十七枚. ([山/又]通度寺戒圻記, 亦[山/又]事林廣記也.)”

丁本: 「信孝居士親見五類聖事蹟」, “庭中有八面十三層石[土+(人/富-宀)]內,

安世尊舍利三十七枚. (出通度寺戒壇記, 亦出事林廣記也.)”

위의 「신효거사친견오류성사적」의 인용문을 분석해 보면, 갑·을본이 “팔면구층석탑”과 “우바국다존자사리”라는 점에서 같고, 병·정본이 “팔면십삼층석탑[土+(人/富-宀)]”과 “세존사리삼십칠매”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이러한 네 본은 모두 이의 출전으로 『통도사계단기(通度寺戒壇記)』와 『사림광기(事林廣記)』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효거사친견오류성사적」의 네 본을 통해서 본다면, 병·정본의 자장전기 기록은 같은 병·정본의 「신효거사친견오류성사적」과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신효거사친견오류성사적」의 출전이 『통도사계단기』와 『사림광기』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자장전기에는 원효소찬 『전』으로 되어 양자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즉 둘 중의 하나는 후대의 추가에 따른 오류라는 말이다. 이의 사실판단을 위해서 가장 정확한 수단은 『통도사계단기』와 『사림광기』의 내용을 「신효거사친견오류성사적」의 이 부분과 대조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두 책은 전해지는 것이 없다.¹⁴⁾ 이는 결국 관련 자료들 안에서의 타당성 검토만이 유일한 해결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팔면구층석탑과 팔면십삼층석탑은, 모두 현재 국보 제48호로 지정되어 있

14) 韓國木簡學會編, 『『五臺山事蹟』의 甲·乙·丙·丁本』, 『韓國木簡學會 하계워크샵 資料集』(平昌: 五臺山月精寺, 2014), p.110의 脚註245, “優婆塞多尊者舍利”에 삭제의 점을 찍고, 옆에 ‘世尊舍利三十七枚’를 追記하고 있음.”

15) 『事林廣記』는 어떤 文獻인지 추정이 불가능하며, 『通度寺戒壇記』 역시 현행 『通度寺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韓國學文獻研究所編, 『『通度寺誌』目次』, 『通度寺誌』(서울: 亞世亞文化社, 1979), pp.11-17.

는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층수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월정사 앞마당이 산에서 유입된 토사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약 50cm정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의 발굴결과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며, 이로 인해 현재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역시 기단부가 50cm정도가 파묻혀 있는 상황이다.¹⁶⁾ 즉 기단부가 완전히 노출된 과거에는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기단을 층수로 잘못 이해해, 13층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모향산 보현사에는 월정사 탑과 유사한 형태의 고려시대 팔각십삼층석탑(북한국보 제23호)이 존재하니, 이와 같은 판단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9층 석탑이 13층 석탑으로 인식이 바뀐다는 것은, 당연히 건립 당시의 9층 석탑이라는 이해가 사라진 후대의 관점에나 가능한 것이다.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의 건립연대는 하한을 1,000년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⁷⁾ 그러므로 13층이라는 관점은, 이 보다 훨씬 후에 파생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도출된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대산월정사오류성중」을 보면, 이 탑을 “구층석탑”으로 명기한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¹⁸⁾ 즉 일연 당시까지의 자료들은, 9층이라는 정확한 이해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일연과 1세대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민지 역시 9층이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을 환기시킨다. 특히 민지는 자신이 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통도사계단기』와 『사림광기』라는 출전을 기록하고 있다. 이 자료는 최소한 민지보다 연대가 올라간다는 점에서, 13층이라는 오류의 가능성이 더 적다. 즉 민지의 원 기록은 팔면구층석탑이었던 것이, 후대 월정사의 인식변화와 함께 이것이 팔면십삼층석탑으로 개변된 것이라는 말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석탑의 층수와 연동되어 살펴지는 “우바국다존자사리”와 “세존사리삼십칠매”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일정부분 인지되는 측면이 존재

16) 廉仲燮, 「慈藏의 五臺山 開創과 中臺 寂滅寶宮」, 『韓國佛敎學』 제66호(서울: 韓國佛敎學會, 2013), pp.31-32.

17) 月精寺聖寶博物館 編, 『月精寺八角九層石塔의 재조명』(平昌: 月精寺聖寶博物館, 2000), p.113.

18) 『三國遺事』 卷3, 「塔像第四-臺山月精寺五類聖衆」(『大正藏』49, p.1000上), “寺之五類聖衆九層石塔皆聖跡也.”

한다. 특히 을본에는 “우바국다존자사리” 부분에 삭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옆에 “세존사리삼십칠매”라는 추기(追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월정사 내의 인식이 어느 시점부터 우바국다존자사리에서 세존사리삼십칠매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팔면구층석탑과 우바국다존자사리’가 연동되어 있고, ‘팔면십삼층석탑과 세존사리삼십칠매’가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변화기록의 존재는 팔면구층석탑이 원형이며, 팔면십삼층석탑은 후대의 개변이라는 측면에 한층 더 무게를 실어주게 된다.

부법장(付法藏)의 제4조이자,¹⁹⁾ 아소카왕의 스승인 우바국다(Upagupta)는 매우 중요한 고승이다.²⁰⁾ 그러나 제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분의 사리는 교조인 붓다의 사리권위에는 당연히 필적할 수 없다. 또 오대산은 불사리의 대표적인 전래자인 자장과 관련된 성지이다. 이런 점에서 우바국다의 사리라는 전승이 후일 붓다의 사리로 개변되는 것은, 종교전승에 있어서는 나름의 필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여기에는 종교적인 당위성으로서의 개변 목적과 타당성이 인지되는 것이다.

또 세존사리삼십칠매라는 기록에는, 우바국다존자사리 부분에는 없는 ‘37매’라는 사리의 구체적인 개수가 적시되어 있다. 이 말은 이 내용이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의 개보수와 관련되어, 석탑 사리구의 내용확인이 존재한 이후에 파생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즉 그 전에 없던 구체적인 측면의 대두와 이와 연관된 명칭의 변화는, 이것이 석탑의 개보수와 관련된 상황 속에서 사리추가 등에 의해 파생하였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말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팔면구층석탑과 우바국다존자사리라는 기록이 원형이며, 팔면십삼층석탑과 세존사리삼십칠매라는 내용은 후대의 변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게 된다. 또 이의 출전은 당연히 원효의 『전』이 아

19) 『雜阿含經』卷23, 「六〇四(阿育王經)」(『大正藏』2, p.165中·下); 『阿育王經』卷2, 「見優波笈多因緣品第二」(『大正藏』50, pp.135中-139中); 『阿育王傳』卷3~4, 「優波笈多因緣之一~憂波笈多因緣之餘」(『大正藏』50, pp.111中-114上).

20) 『景德傳燈錄』卷1, 「第四祖優波笈多」(『大正藏』51, p.207中), “第四祖優波笈多者。吒利國人也。亦名優波幅多。又名鄒波笈多.”; 『付法藏因緣傳』卷2~5, 「第二十八祖菩提達磨」(『大正藏』50, pp.304中-314下).

닌, 『통도사계단기』와 『사림광기』가 정당하다. 그러므로 정보 자장전기에서 사리봉안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모두 원효소찬 『전』이라고 표기한 것은, 후대의 변화에 의한 삽입을 고려하지 않은 기록이라고 하겠다. 즉 원효소찬 『전』의 내용은 을본에서 확인되는 간략한 것에 불과하며, 정보는 이를 바탕으로 추가된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를 통해서, 병·정본이 아닌 갑·을본이 민지가 찬술한 원형이라는 판단을 정리해 볼 수가 있다.

또 여기에는 병·정본 속에는 후대에 추가된 내용으로 판단되는, 앞서 언급한 ‘재상급의 권유와 위법망구(爲法忘軀)의 내용’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외에도 앞서 분석한 주문(註文)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 역시, 갑·을본에는 연도와 관련된 『삼국사』선덕왕오년”의 기록 하나 뿐인데 비해, 병·정본에는 “신라무림공지제이자(新羅武林公之第二子), 선덕왕지친족야(善德王之親族也).”·“사시년이십오야(師時年二十五也)”·“서부대양명기고목(西浮大洋命寄刳木)”의 3건이나 존재한다. 이는 갑·을본에 비해서 병·정본이 윤색된 결과물일 가능성을 증대시켜준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전거를 통해서, 갑·을본이 민지본의 원형이며 병·정본이 후대의 불사리봉안과 같은 문제의식 및 변화된 인식에 의해서, 추가·윤색된 본임을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렇다면 병·정본 중 갑·을본과 다른 부분들은 자장전기 자료로서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인가?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다. 앞선 쟁점분석에서 검토한 것처럼, 정보의 註文으로 판단될 수 있는 “신라무림공지제이자, 선덕왕지친족야.”·“사시년이십오야.”·“서부대양명기고목”의 내용은, 모두 자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기록은 간단하게 배척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특히 이는 자장에 대한 전기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들 기록들이 이와 같은 나름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이유는, 이 내용들이 당시까지 전해지던 자장과 관련된 모종의 ‘산중고전(山中古傳)’을 참고해서 윤색된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실제로 「대산오만진신」에는 “안산중고전(按山

中古傳)”이라고 해서,²¹⁾ 산중에 전해지던 모종의 자료에 대한 언급이 존재한다. 물론 이 자료들은 민지에게 『오대산사적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모두 전달되어, 민지본 자장전기 자료가 완성되는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산중고전’은 민지가 인용하고 있는 『기(記)』·『대산본기(臺山本記)』·『대산본전기(臺山本傳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 이러한 자료 중 일부는, 민지에 의해서 자장전기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계속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측면 중 일부가 후일 『오대산사적기』가 필사되고 재편집되는 과정에서, 민지본 자장전기 자료의 개편을 파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병·정본의 개편된 부분 역시 내용적인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만일 그렇지 않고 후대 누군가의 필사자 및 편집자에 의한 일방적인 개편이라면, 개편된 자료에 내포하는 높은 사실성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IV. 결론 – 민지 자장전기의 특징과 가치

이상과 같은 갑·을본의 새로운 발견과 민지본의 추적을 통해서, 총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판단해 보게 된다. 첫째는 『오대산사적기』 속 자장전기 자료는, 갑·을본이 민지본이며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병·정본은 후대에 윤색된 자료라는 점. 둘째는 병·정본은 후대 윤색부분이 모종의 ‘산중고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셋째는 첫째와 둘째에 의거해서, 『오대산사적기』 속 자장전기 자료는 민지본과 ‘산중고전’에 입각해서 변형된 두 가지 층위가 존재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 중 첫째도 중요하지만, 현존하는 자장전기 자료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셋째 역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대산사적기』 자장전기 자료의 앞 1/4까지에서만 주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 ‘산중고전’에 입각한 병·정

21) 『三國遺事』卷3, 「塔像第四－臺山五萬眞身」(『大正藏』49, p.998中).

본의 후대윤색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면, 이 부분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당시 참조가 된 모종의 ‘산중고전’이 다루고 있는 자장전기 자료의 차이나 한계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산중고전’과 관련된 내용이 앞부분만 존재했거나, 또는 앞부분에서만 개변의 타당성이 있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일연이 당대 가지산문을 대표하는 명망 있는 선승이라면, 민지는 당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문신이자 호불론자이다. 이와 같은 두 사람의 배경은, 당연히 자장전기를 다룸에 있어도 상호 다른 관점을 견지할 수밖에 없게 한다.

민지의 자장전기에서 확인되는 가장 큰 특징은 출전의 표기가 많다는 것이다. 일연은 자장전기 자료 전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출전이 『본전』과 『자장전』 그리고 황룡사와 관련된 『사중기』와 <탐찰주기>의 총 4가지이다. 그런데 민지는 『삼국사』를 제외하고도, 『본전』·『전』·『기』·『대산본기』·『대산본전기』·『대산본전기』의 5가지 자료를 총 6번에 걸쳐 인용하고 있다. 참고로 민지가 인용하고 있는 자료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本傳』 → 『臺山本記』 → 『記』 → 『臺山本傳記』 → 『傳』 → 『臺山本傳記』

언 듯 보면, 두 사람의 인용 자료 수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일연의 자장에 대한 언급이 총 9편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연의 출전언급이, 정작 자장과 관련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본전』과 『자장전』에서는 자세하지 않다는 점. 또 4개 중 2개가 주문(註文)이라는 점 등은, 일연의 인용방식이 민지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참고로 일연의 자장관련 문헌에서 확인되는 인용방식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皇龍寺九層塔」의 註文: 詳見本傳.

「迦葉佛宴坐石」: 玉龍集及慈藏傳與諸家傳紀皆云.

「皇龍寺九層塔」의 註文: 寺中記云, 於終南山圓香禪師處, 受建塔因由.

「皇龍寺九層塔」: 其塔剝柱記云, 鐵盤已上高四十二尺, 已下一百八十三尺.

이와 같은 일연의 인용방식과 달리, 민지는 훨씬 더 세밀하고 단락단락의 내용과 관련된 출전을 정확하게 명기해 주고 있다. 이는 민지가 「발문」에서 “이 필삭운이(而筆削云爾)”라고 한 것을 통해서도 단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물론 민지가 인용한 1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1차 자료를 사용한 것인지는 현재 검토해 볼 방법이 없다. 그러나 현존하는 민지의 자장전기의 형식만 가지고도, 일연과의 구성방식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인식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민지가 인용방식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로 판단된다. 첫째, 민지는 술이부작(述而不作)의 태도를 요구받는 유학자라는 점. 둘째, 민지는 일연에 비해서 불교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다루는데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지의 방식은, 원 자료의 특징이 보다 분명히 드러나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확보한다. 즉 일연과 민지가 공통으로 인용하고 있는 자료인 『본전』과 『전』과 같은 경우에도, 일연에게서는 이 중 『본전』만이 자장의 중국오대산 문수친견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개략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서 자장전기 자료의 내용을 분절해서 각각의 출전을 제시하고 있는 민지에게서는, 보다 풍부한 내용을 읽어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장점은 민지의 자장전기 자료가 일연에 비해서 더 뒤에 편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인 정확성을 더 높게 인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즉 원 자료의 인용방식이라는 충실성이, 뒤에 만들어진 민지본 자장전기의 타당성을 더 높게 부여해 준다는 말이다.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자장 연구에 있어서, 국내 자료의 핵심은 일연의 「자장정율」을 비롯한 『삼국유사』 속 자료들이었다. 그리고 이의 보조 자료로 민지의 자장전기 자료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민지 전기 자료의

구성방식을 이해하게 되면, 이와 같은 관점은 상당부분 수정될 여지가 존재한다. 특히 민지는 자장과 오대산과 관련된 자료만을, 오대산 측의 요청으로 작업하고 있다는 점에 더욱 그렇다. 즉 민지에게는 일연과 같은 불교에 대한 방대한 지식은 없지만, 집중적인 측면에서는 더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해서 민지의 「발문」 중 중요한 대목이, 바로 오대산의 요청에 의해 이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부분이다.²²⁾ 이때 민지의 나이는 60세로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였다. 이는 당시 자장과 오대산관련 문건들을 오대산 측에서 모두 제공했다는 의미가 된다. 즉 민지가 일연에 비해서 더 많은 자료를 집중적으로 봤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민지의 자장전기 자료가 가지는 중요도는 결코 일연의 자장전기 자료에 비해서 낮게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2) 『五臺山事蹟記』, 「乙本の 閱漬跋文」, “沙門而一見之. 慨然發嘆. 既已殫力修葺. 來謂予曰. … 云云 … 予聞其言以爲然. 雖自知爲文不能副其意. 亦重違其請. 而筆削云爾.”; 「丁本の 閱漬跋文」, “沙門而一見之. 慨然發嘆. 既已殫力修葺. 來謂余曰. … 云云 … 予聞其言以爲然. 雖自知爲文不能副其意. 亦重違其請. 而筆削云爾.”

참고문헌

1. 원전류

- 『雜阿含經』, 『大正藏』2.
- 『三國遺事』, 『大正藏』49.
- 『續高僧傳』, 『大正藏』50.
- 『阿育王經』, 『大正藏』50.
- 『阿育王傳』, 『大正藏』50.
- 『付法藏因緣傳』, 『大正藏』50.
- 『景德傳燈錄』, 『大正藏』51.
- 『法苑珠林』, 『大正藏』53.
- 『三國史記』.
- 『五臺山事蹟記』, 「五臺山月精寺開創祖師傳記」·「奉安舍利開建寺庵第一祖師傳記」.
-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乾鳳寺本末事蹟·楡岾寺本末寺誌』, 서울: 亞世亞文化社, 1977.
-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通度寺誌』, 서울: 亞世亞文化社, 1979.

2. 논문류

- 月精寺聖寶博物館 編, 『月精寺八角九層石塔의 재조명』, 平昌: 月精寺聖寶博物館, 2000.
- 韓國木簡學會 編, 『韓國木簡學會 하계워크샵 資料集』, 平昌: 五臺山 月精寺, 2014.
- 廉仲燮, 「慈藏의 五臺山 開創과 中臺 寂滅寶宮」, 『韓國佛敎學』 제66호(서울: 韓國佛敎學會, 2013).
- _____, 「慈藏의 入唐目的과 年度에 대한 타당성 검토-閔漬의 「第一祖師傳記」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제118호(果川: 韓國史學會, 2015).

A Review on Versions of *Odaesan Sajeoggi*(五臺山事蹟記) and *Jajang Jeongi*(慈藏傳記) written by Minji(閔漬)

— focusing on the material of newly-found Minji's *Jajang Jeongi* —

Youm, Jung-seop(Ven. Ja-hyun)
Professor, Dept. of Buddhist Studies.
Joongang Sangha Univ

Typical Korean materials for *Jajang* are the records in Ilyeon(一然)'s *SamgugYusa* and *Jajang Jeongi* (*Jajang's Biography*) in *Odaesan Sajeoggi* written by Minji. In relation with Minji's *Jajang Jeongi*, a new version was found at Woljeongsa Temple in the autumn of 2014. With this, it is newly relevant to review 'the version' problem and 'the prototype of Minji's version'.

To solve this problem, Chapter 1 of this paper overviews the versions of *Odaesan Sajeoggi*. Through this, it was found that the system of most prevalent Byung-Jeong Versions(丙·丁本) is later than those of Gab-Eul(甲·乙本).

Based on this, the differences between Eul Version, the representative of Gab-Eul versions(甲·乙本), and Jeong Version, the representative of Byung-Jeong Versions(丙·丁本) are checked in Chapter II. First, 8 differences between Eul and Jeong Versions are presented and their significance is examined in Chapter II. This can provide the background to judge the Minji version as the prototype of the material.

Next, Chapter III makes a more concrete approach to the causes of changes found in Chapter II. Though this, it is also seen that even in *Jajang Jeongi*, Gab-Eul versions were published earlier than Byeong-Jeong versions. This study is very significant in that the former understanding about Minji's version should be

adjusted.

Finally, in Chapter IV, the characteristics of Minji's *JajangJeongi* are researched along with the review results of former chapters. With this, it can be seen that, unlike the conventional viewpoints, Minji's *JajangJeongi* is more faithful to the original material than Ilyeon's record about Jajang.

Keywords

OdaesanWoljeongsGaechangjosaJeongi, *Bongan Sari GaegeonSaamJeilJosaJeongi*, Ilyeon, sari(sarira), Odaesan, Jajang

2015년 10월 05일 투고

2016년 02월 28일 심사완료

2016년 02월 29일 게재확정

